

97년 대선과 공안탄압

전쟁터에서 후퇴하는 쪽이 더 많은 군사를 잃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마찬가지로 대결국면에서 보수진영의 탄압이 거세 진다고 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면 이후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는 지금보다 몇 배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윤도협

민우당법대위

1. 글을 열며

마치 대통령선거 본선을 방불케 했던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경선이 아비규환(阿鼻叫喚)으로 시작되어 마침내 이수라(阿修羅)로 막을 내렸다. 동시에 정국은 또 다시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일가의 군문제에 휘말리면서 혼탁한 안개정국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초지일관 서로의 약점을 최선을 다해 끄집어냄으로써 서로에게 치명적 상처를 내려 인간됨을 쓰는 보수정객들의 사투의 막이 관객을 무시한 채 올라가고 있다.

경제문제는 어떠한가? 한보사태, 삼미의 부도, 진로의 부도설에 이어 자신의 자

산규모 몇 배를 끌어다가 몸통 불리기를 시도했던 기아그룹은 마침내 부도라는 화염에 휩싸여 공중분해될 위협에 처해 있다. 한국사회의 잘못 형성되어온 경제구조가 이제 서서히 그 운명을 다해가고 있는 것이다.

민생문제는 어떠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죽 발뻘고 단란하게 지낼 수 있는 방 한 칸을 지키려다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철거민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취업예비군들이 취업박람회장에 늘어선 줄처럼 끊어질 않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문제 어느 것 하나 평탄하게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 없다. 한편에

연행과 구속의 양상은 이전과 달리 1차, 2차 심지어는 3차 연행과 구속까지 당한 단체들도 적지 않을 정도였다. 게다가 현재까지도 공안탄압의 날선 칼 앞에서 있는 단체들과 진보인사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선 권력을 향한 아비규환! 한편에서는 생존을 향한 이수라!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자들의 생존을 위한 다른 한쪽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 '97년 올해 들어서만 줄잡아 40여개에 이르는 진보운동 단체들이 공안정국의 희생양으로 제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배짱 좋은 탄압선포식

97년 한총련 출범식 사태 이후 학생운동을 상대로 활동을 벌이던 '좌익학생수사본부'가 관계장들의 회의를 거쳐 '좌익합동수사본부'로 그 위상이 승격되었다. 이석씨 치사사건을 빌미로 그 동안 보수진영에게는 눈엣가시가 되었던, 진보운동 단체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보수진영의 의도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40여개에 이르고 있는 진보운동단체들의 활동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모조리 잡아들이겠다고 공공연한 포부를 밝히기 에까지 이르렀다. 그 후 각각의 단체들에 대한 내사, 연행, 구속 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급가이는 침탈을 당한 단체들이 합동수사본부에서 약속한 것처럼 40여개에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연행과 구속의 양상은 이전과 달리 1차, 2차 심지어는 3차 연행

과 구속까지 당한 단체들도 적지 않을 정도였다. 게다가 현재까지도 공안탄압의 날선 칼 앞에서 있는 단체들과 진보인사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3. 한청련 탄압의 전개과정

96년 2월 4일 창립출범식을 개최한 한국노동청년연대(이하 한청련)는 96년 4월 24일 11명의 간부 및 회원이 구속되는 사건을 겪었다. 한청련은 이후 97년 2월 2차 정기총회를 거쳐 '참된 민주사회의 실현, 올바른 민족의 통일, 진보정치운동의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의 신장을 위해 활동한다'라는 강령과 규약개정을 통해 대중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한청련은 강령규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0일 창립 후 2차 침탈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오진석 부의장을 비롯한 9명의 간부 및 회원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출두한 서울시경 공안2과 형사들에 의해 연행 및 긴급구속을 당했다.

신혼의 단꿈을 앗아가 버린 새벽침탈

지난 4월 20일 박용덕 인천지부장은 바

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 꿈에도 그리던 결혼식을 올렸다. 평생 외길을 함께 가고자 활동을 함께 해온 한 여성동지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운동에 대한 신념을 다졌던 그는 동자들에게 자신의 의지와 결의를 밝히고 한층 성숙한 면모로 다가섰다. 그러나 달콤한 신혼의 새벽은 6월 20일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들이닥친 공안형사들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결혼 직후 아기가 생겼다는 석경 반 기대 반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하얀 미소를 드러냈었던 박용덕지부장! 그러나 지금은 어두운 감옥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예비하고 있는 자신의 아이처럼 새로운 삶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만삭이 된 아내를 뒤로하고

한 집안의 장남이면서 한 아이의 아버지였던 공승천 (전)정책교육위원장은 둘째 아이를 갖게 되면서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되자 잠시 동지들 곁을 떠나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것이 벌써 몇 달 전의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 한 켠에 동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6월은 둘째 아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세상의 빛을 보는 달이었다. 연행 후 이틀째 둘째 아이(공주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눈물은 자식이 태어나는 것조차 곁에서 지켜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한스런 처지에서 나온 눈물이기도 했지만, 인간과 가족의 삶을 송

두리چه 부정하고 있는 이 사회의 오만한 질서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세계일류' 기업의 직원

중동부지부장 최대엽동지는 삼성의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어디를 가든 서너명 이상의 보디가이드를 달고 다녔다. 그는 심지어 다섯 명에 이르는 미행이 붙기도 했다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세계일류 회사에 다니는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곤 했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창런 중동부지부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했던 최대엽지부장은 가정형편상 청년회의 말에만 전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두고라도 상근을 해야겠다고 입버릇처럼 되뇌던 최대엽지부장은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온 회사 부장의 사표강요에 그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철창 안의 동료의 신상에 대한 걱정보다는 회사의 이익에만 급급해야 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가 어떤 심정이 들었는지 안쓰럽기만 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인간의 질서가 이 잔악한 재벌의 질서를 앞지를 것임을 믿는다.

위에 열거된 세 분의 동지들 외에도 한창런은 여섯 명의 동지를 빼앗겼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원강사를 하며 부의장역 할까지 빈틈없이 해내었던 오진석 부의장, 출판사 영업부장을 하던 박성덕 회원, 5년째 농협직원으로서 직장에서도 그 능력을

6월은 둘째 아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세상의 빛을 보는 달이었다. 연행 후 이틀째 둘째 아이(공주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눈물은 오만한 사회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인정받았던 김숙이 서부지부장 등 한청련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동과 생활을 일처시켜 나갔던 동지들! 비록 지금은 어두운 감옥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다시금 동지들 곁으로 돌아올 때에는 보다 큰 우리의 희망을 짊어지리라 확신한다.

4. 탄압의 의미

'1997년'은 한국정치사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할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이고, 한국사회 보수화에 박차를 가하며 시종일관 고군분투해오던 3김의 마지막 대결이 벌어지며,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의미와 수석자들이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며 정리되어갈 지 판가름하기가 힘들다.

91년 3당야합을 통해 군사독재의 잔재를 그대로 돌려받은 채 탄생한 민자당은 92년 대선에서 분민정부를 낳았다. '분민정부'라는 이데올로기가 한국사회에 미쳤던 영향은 실로 상당한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군사독재에 맞서는 국민적 저항을 말지 않아도 되었고 -그 저항의 실체 또한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무드에 자연스럽게 편승해 가던 것이었다. 그러나 문민정권은 보수화로 치달으면서 점점 국민일반으로부터 지지를 잃어 갔으며 이러한 여당과 하등의 차별성도 만들어 낼 수 없었던 보수야당 또한 국민들로부터 멀어졌다.

만만 97년 진보운동전영의 변화된 객관적 현실을 짚어보자면, 87년과 92년대선을 통해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및 전파한 세력들은 92년대선 이후 주객관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고립과 분산을 면치 못하면서 점점 그 대중적 기반과 지지도가 약화되어온 행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모아 결집된 민주노총은 그 규모와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모토로 내세울 정도로 상당한 대중적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결국 92년 대선 이후 한국의 진보운동은 정치조직운동의 축소화와 노동조합운동의 약진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된 객관적 정세

속에서 97년 대선을 맞이하고 있다. 97년 대선을 통해 각각의 보수진영은 정권의 안정적인 창출을 도모하려 하고 있으며 진보진영 또한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준비를 차분히 준비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이 보수진영의 배타적인 권력지향성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진보진영을 탄압하고 있다. 진보진영-민중진영을 배제한 자신들의 권력다툼을 위해 진보운동 진영을 또다시 권력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시기 보수진영의 공안탄압이 지나는 의미는 이번 대선에서의 배타적인 보수권력의 재창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5. 우리공동의 과제

전쟁터에서 후퇴하는 쪽이 더 많은 군사를 잃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마찬가지로 대결국면에서 보수진영의 탄압이 거세 진다고 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면 이후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는 지금보다 몇 배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모색해야 할 것이다.

97년은 보수진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바로 현시기 진보운동 세력의 결집이야말로 향후 생과 사를 기누하게 될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의 결집이나

어떠한 것을 목표로 결집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본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글을 마칠까 한다.

첫째, 진보운동 진영은 현시기 공안탄압을 비롯한 민중운동일반에 대한 탄압에 맞서 최대한 공세적인 실천을 해나간다. 둘째, 87년부터 지속되온 진보정당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는 가운데 주요한 정치일정으로 자리잡힌 97년 대선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들어간다. 셋째, 이번 97년 대선을 통해 반드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굳건히 한다. 이와 같은 과제들은 동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의 어려움은 바로 지금의 현실 속에서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